

27학년도 입시부터 출결 기준 강화 반영

권도연 기자 khudy94@khu.ac.kr

지난달 29일 우리학교 2027학년도 대학입학 전형 시행 계획안이 발표됐다. 주요 변동 사항은 인재상 변경, 출결 사항 반영 방법 변경이다.

학생부 비교과 중, 출결 반영 방식에 변화가 생겼다. 기존에는 3년간 총 미인정 '수업 일수'만 반영해 왔으나 앞으로는 결석 일수 뿐만 아니라 지각·조퇴·결과까지 반영한다. 미인정 지각·조퇴·결과 2회당 미인정 결석 1일로 간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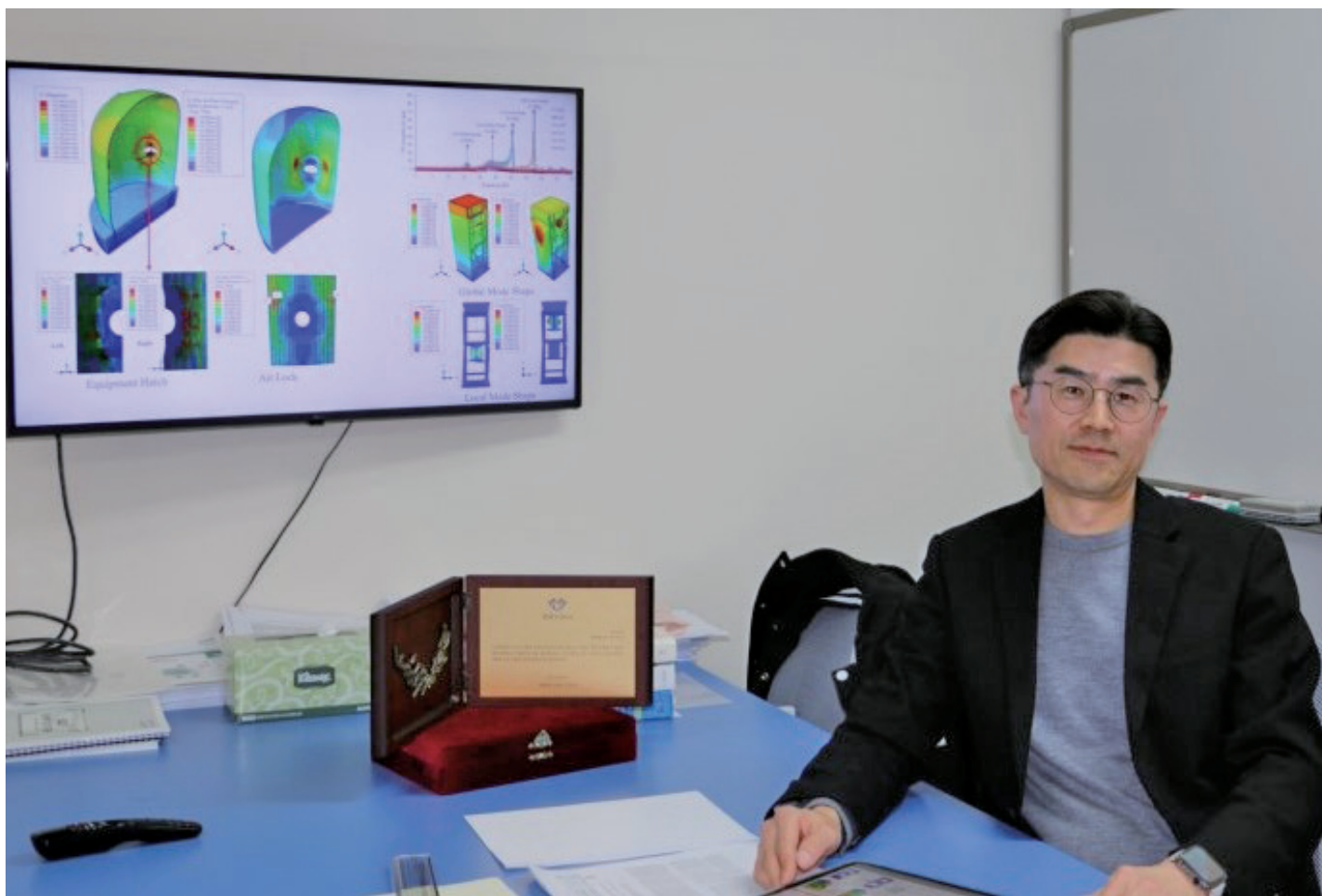
입학처는 “코로나 시절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며 지원자 출결 사항이 많이 안 좋아졌는데, 현재까지도 이러한 분위기가 계속 조성이 되고 있다”면서 “출결은 학교생활의 기본 사항이기 때문에 교육적인 측면에서의 정상화를 위해 출결 사항 반영 기준을 상향하게 됐다”고 말했다.

모집 학생 인재상도 변경됐다. 기존 ‘문화인’, ‘세계인’, ‘창조인’에서 ‘성찰하는 지성인’, ‘창조하는 미래인’, ‘공존하는 세계인’으로 바뀌었다. 이는 2027학년도 입학 전형부터 적용된다.

입학전형팀 임진택 팀장은 “시대 변화에 맞춰 새로운 인재상을 정립하고자 했다”며 “2020년에 입학처 내 인재상 수립 TF를 구성해 1년간 연구를 진행해 새로운 인재상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2024년 신입 총장 취임 시기에 맞춰 구체화 작업을 거쳤다.

이어 작년 하반기부터 내부 논의를 거쳐 대입전형관리위원회 심의와 교무위원회 발표, 총장 보고 절차를 진행했다. 이를 거쳐 지난 3월 말 최종 인재상 개편안을 확정했다.

입학처는 새로운 인재상에 “AI 시대 환경과 학생 눈높이에 맞춰 인재상을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화한 것이 특징”이라면서도 “인재상이 실질적으로 평가 요소로 작용되는 것은 아니기에 지원자들이 그런 부분을 별도로 준비할 필요는 없지만, 대학의 평가 요소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고 정도만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전했다.



주 교수는 “코로나 이후로 학생들과의 교류가 이전보다 현저히 줄었음을 체감한다”며 “먼저 학생들과 소통하고 다가가려는 교수가 되려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원희재 기자)

“학생 능력은 현장에서 자란다” 이론 넘어 경험의 중요성 강조

원희재 기자 whj6470@khu.ac.kr

2024 경희 Fellow 우수 교육-② 사회기반시스템공학과주부석교수

경희는 교육·연구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인 교원을 ‘경희 Fellow’로 선정한다. 우리신문은 2024 Fellow 교수 중 학생과 밀접한 ‘교육’ 우수 부문 교원 3명 중 2명(변경민, 주부석 교수)을 만나본다. 두 번째 순서로 주부석(사회기반시스템공학) 교수를 만나기 위해 공과대학관을 찾았다.

주 교수는 많은 사람에게 ‘토목’이라고 더 잘 알려진 사회기반시스템공학과 교수로, 2019년부터 현장 실습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해 왔다. 그가 중시하는 교육적 철학이 바로 ‘현장’이기 때문이다.

주 교수는 “결국 학생의 능력은 현장에서 나온다”며 이론 공부를 넘어 현장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전공을 드나드는 것을 넘어, 주 교수가 직접 기획한 현장실습을

통해 매년 20명 내외의 학생이 방학 동안 설계, 시공회사에서 실습을 진행하고 현장을 견학한다.

주 교수는 “현장에서 직접 뛰고 있는 지인과 적극적으로 연락해 학생에게 더 좋은 실습 환경을 제공하고자 노력했다”며 “학생이 적성에 맞는 분야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아 매년 확대하려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

‘현장 중심’을 강조하는 교육 철학은 그가 공학도인 제자들에게 세계로 뻗도록 이끌기도 했다. 주 교수는 “해외 건설 시장으로 국내 엔지니어의 진출이 활발하다”면서도 “외국어 능력의 부족으로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했다. 2019년부터 글로벌 엔지니어 육성을 위해 외국어대학과 사회기반시스템공학과 간 융합 전공 트랙이 개설된 것도 주 교수의 주도로 이뤄졌다.

학생을 위한 질 높은 교육을 위한 주 교수의 노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해외 교수 초청 세미나도 진행한다. 라스베이거스에서 온 교수들이 매년 우리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에게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한다. 주 교수는 “해외 대학과 기관들은 국내와 비교해 봤을 때 기초학문 연구가 높은 수준이라 학생들이 배울 점이 많다”고 했다.

해외 진출과 융합 전공을 중시하는 교육 철학에는 주 교수의 유학 경험이 영향을 미쳤다. 주 교수는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에서 토목공학을 전공했다. 연구생 시절엔 토목공학·컴퓨터공학·원자력공학을 융합한 연구를 수행하기도 했다.

주 교수는 “유학 가기 전부터 토목공학을 다른 분야와 함께 공부하고 싶었다”며 “마침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에 융합 학문을 특성화한 규모가 큰 연구센터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선택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간의 노력을 인정받은 주 교수는 수업과 별개로 학생들과 더 가까워지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주 교수는 “코로나 이후로 학생들과의 교류가 이전보다 현저히 줄었음을 체감한다”며 “먼저 학생들과 소통하고 다가가려는 교수가 되려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현장중심”을
강조하는 교육 철학은
그가 공학도인 제자들에게
세계로 뻗도록
이끌기도 했다.

”